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외모와 언어 단서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

Children's Awareness of Racial Features, Racial In-Group Classification and
Racial Preference According to Visual and Language Features*

이정민(Lee, Jungmin)¹⁾

이강이(Lee, Kangyi)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racial features, racial in-group classification and preference by Korean children. The study participants comprised 89 children aged 3-5 years. The children performed photograph description and choice task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lder children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younger children to use racial feature and less likely to use general physical feature to describe the stimuli. Second, children tended to select the South-Asian person speaking in Korean language as a Korean, rather than the Korean person speaking in English. Third, children tended to select the person of Korean appearance speaking in English as a playmate. The result revealed the developmental features of racial awareness. Furthermore the correspondence of language plays an important role on the children's in-group classification whereas the correspondence of appea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on the children's preference.

* 본 논문은 2012년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¹⁾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noi24@snu.ac.kr)

²⁾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and Researcher of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Kangyi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Kwanak-ro, K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 kangyi@snu.ac.kr

Keywords : 인종적 신체특징 인식(awareness of racial features), 내집단 범주화(racial in-group classification), 선호도(racial preference), 언어(language).

I. 서론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화의 추세는 경제발전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외부 인구의 유입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노동 인구를 송출하던 국가였으나 현재는 노동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국가로 변했으며,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차별과 무시의 태도를 보인다(Seol, 1999). 한국인은 특히 중국인과 동남아인에 대해 큰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냈다(Kim et al., 2011). 이 중 동남아인은 외모의 차이가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더욱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동남아인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은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유아기에 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게 되므로, 미래 사회를 책임질 유아들이 다양한 배경의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 일련의 특질이나 특성으로 복잡한 일상의 경험을 단순화하는 범주화 과정을 통해 사건을 일반화하고 유형화한다(Allport, 1958). 사회적 범주화는 사회적 세계를 구분되는 범주나 부류로 나누는 것을 말하며, 한 개인을 범주에 포함시

킬지 아니면 제외시킬지를 체계적으로 결정한 다(Turner, 1982). 유아들 또한 이른 시기부터 사회적 세계에 대해서 범주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에게 친숙한 것과 낯선 것을 구분한다. 가령 신생아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보다 엄마의 목소리를 더 잘 인식(DeCasper & Fifer, 1980)하며, 3개월 영아는 같은 인종 집단 구성원의 얼굴을 다른 인종 집단 구성원의 얼굴보다 잘 인식한다(Sangrigoli & Schonon, 2004).

인종은 성별, 연령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적 범주이다(Kinzler, Shutts, & Corell, 2010). 19세기 이후에는 구분 가능한 신체 특징을 지니는 백인종(caucasoid), 흑인종(negroid)과 황인종(mongoloid)의 세 가지로 인종을 분류하고 이들이 기후 조건에 따른 적응 과정에서 형성된 군집이라고 보는 관점이 유행했으나, 이 방법은 부정확하고 자의적이다. 예를 들어 흑인종의 경우 흑인 간에 다양한 신체적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일 인종으로 보는 관점이 팽배했던 것은 노예제 도라는 사회적 요인 때문이었다(Hirschfeld, 1998). Loveman(1999)은 인종을 인종화된 사회 집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유아의 인종 집단에 대한 태도 연구들은 해당 사회에 존재하는 주류 인종 집단과 소수 인종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캐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Aboud(2003)의 연구는 유아가 어떤 인종에 속하는지를 질문하면서 보기로 백인 캐나다인, 흑인 캐나다인과 캐나다 원주민을 제시했다. 스페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페인인, 중국인, 라틴아메리카인과 집시로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유아의 태

도를 살펴보았다(Enesco, Navarro, Paradela, & Guerrero, 2005).

인종 인식(racial awareness)은 ‘인종 범주간의 시각적 차이와 사람들이 이러한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지각적 단서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Porter, 1971). 인종 인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측정되었다. 초반에는 다양한 인종적 신체 특징을 보이는 인형(Clark & Clark, 1939), 그림이나 사진(Guerrero, 2006) 등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이 중에 흑인(백인)은 누구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하여 인종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식은 Jahoda(196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종의 시각적 차이를 깨닫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회 및 언어적 요인이 포함된 인종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가 인종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유아에게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인 분류를 해 보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Guerrero, Enesco, & Lam, 2011; Lam, Guerrero, Damree, & Enesco, 2011; Ramsey, 1991; Ramsey & Myers, 1990; Semaj, 1981).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Shin, 2007; Shim, 2010; Lee, 1999)에서는 유아가 여러 인종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이러한 태도를 형성하기 이전에 지각적 요인을 바탕으로 유아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인종 인식을 지각적 수준에서 살펴본 연구(Chang, Lee, Kim, & Kim, 1999; Lee, 2009)는 흑인, 백인과 황인의 세 인종을 유아에게 제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인종 분류는 생물학적 관찰이 동원되지만 문화적 개념과 결합(Taylor, 2004)되기 때문에 해당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동남아인이 현저한 신체

적 차이(Cho, 2000)를 보이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국인보다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차별 대상이 되고 있다(Seol, 1999). 따라서 한국의 주요 소수 집단이지만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했던 동남아인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가 이들을 인종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화의 역사가 깊은 미국과 같은 지역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유아가 3-4세부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Porter, 1971; Rotheram & Phinney, 1987)한다고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급속히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5세가 되어야 인종적 신체 특징을 중요하게 인식한다(Guerrero et al., 2011). 한국 또한 스페인과 같이 최근 20년간 다문화 사회화가 주요 사회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의 인식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날 수 있다.

인종적 신체 특징을 측정하는 방법론적 측면을 살펴보면,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종별 인물 자극을 동시에 제시하고 인종 명칭에 맞는 인물을 고르거나 분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진이 제시되는 순서나 비교 가능한 대상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인종 특징의 현저함이 지각되는 수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Guerrero(2006)의 연구에서 백인-흑인 순서로 인물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보다 흑인-백인 순서로 제시하였을 때, 유아들이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해 언급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Semaj(1981) 또한 같은 인종의 인물 2명을 제시한 경우보다 다른 인종의 인물 2명을 제시한 경우에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한 인식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제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의 인식을 세부 조건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종적 신체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범주화는

인종적 신체 특성의 지각과는 다르다. 인종에 따른 범주화는 사회적으로 내포된 의미에 대한 이해가 포함(Guerrero et al., 2011)되기 때문에 지각적 수준 이상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범주화를 통해 유아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게 된다. 내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이 '우리'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집단(Allport, 1958)을, 외집단은 내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을 지칭한다. 범주화는 인지적 과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류된 집단에 대해 유아가 특정 정서 및 행동 요인을 갖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와 외집단 편견(out-group prejudice)을 형성한다(Billig & Tajfel, 1972).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형성이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치며,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이 먼저 나타난다(Enesco, Guerrero, Callejas, & Solbes, 2008).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유아가 주류 집단인 한국 또래에게 그들과 같은 집단 즉 내집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내집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내집단 범주화 연구에서 개념 형성과 같은 인지적 측면과, 선호도와 같은 정서적 측면을 분리해야 한다(Signorella, Bigler, & Liben, 1993). 선행연구는 유아가 사회적 집단을 의식하고 범주화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태도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 및 행동요인 측면을 혼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범주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인종적 신체 특징, 성별, 언어 등이 다른 여러 인물 자극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누구와 놀고 싶은지 물어보는 방식이 사용되었다(Kinzler, Dupoux, & Spelke, 2007; Shutts, Kinzler, McKee, & Spelke, 2009). 지각 또는 인지적 입력이 없더라도 정서적 반응이 가능

(Zajonc, 1980)하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인지적 분류 과정과 감정 및 행동 요인의 과정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 과제에서 친숙함과 낯설음이 주요 단서가 된다(Cameron et al., 2001). 유아는 자신과 닮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Aboud & Amato, 2003). 친숙함과 낯설음의 구분은 지각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얼굴과 발화에 담긴 정보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Campanella & Belin, 2007)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외모와 언어가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한국 유아의 태도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유아는 다문화 유아의 외모가 다르거나 언어가 서툰 경우 이를 인지했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Seo & Lee, 2007; Yoon & Cha, 2010).

외모나 언어 중 어떤 단서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피부색, 얼굴 생김새, 신체 구조, 의복 등과 같은 시각적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범주화를 한다(Stangor & Lange, 1994). 이는 내집단 범주화나 선호도가 시각적 단서의 영향을 받을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언어는 사회적 집단의 분류에서 외모 단서보다 늦게 사용(Bar-Tal, 1996)되지만, 유아가 사회적 세계를 구분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단서(Kinzler et al., 2007; Shutts et al., 2009)라는 결과가 있다. 언어는 집단 구성원과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유된 경험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공유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Heller, 1987). 따라서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에서 시각 및 언어 특성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유

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을 살펴보고,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따른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은 인물 자극 제시 조건(단일, 유사, 대조)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및 이에 대한 근거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 및 이에 대한 근거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6곳의 만 3, 4, 5세 학급의 유아 8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 유아의 연령과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3세 30명(남아 13명), 4세 31명(남아 14명), 5세 28명(남아 13명)이었다. 각 시설은 다문화아동으로 등록된 원아가 없어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환경에 있었다. 사회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집단에 대한 범주화는 유아의 인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 유아의 인지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Inhelder, Sinclair와 Bovet(1974)의 자료를 응용한 Guerrero(2006)의 도형 분류 과제를 실시하여 논리적 분류를 1회 이상 수행한 유아만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물 묘사 과제를 실시하였다.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 인종에 대한 선호도 측정을 위해 친구 선택 과제를 실시하였다.

1) 인물 묘사 과제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유아가 인물의 인종적 신체 특성을 이해하고 언급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동남아인에 한정해서 살펴보고, 유아가 인물 묘사 과제에서 인종적 신체 특징(피부색 및 민족 집단 관련 용어)을 언급하는 경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한다고 간주하였다.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Semaj(1981)의 인물 묘사 과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단일 자극, 유사 자극 및 대조 자극의 세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단일자극 조건은 각각 한국인 1명 또는 동남아인 1명이었고 유사 자극 조건은 각각 한국인 2명 또는 동남아인 2명이었으며 대조 자극 조건은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으로 구성하였다. 사용된 인물 자극은 모두 유아 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아용 사진 4매와 남아용 사진 4매 총 8매였다. 사용된 사진을 선정하기 위하여 유아 인물 사진 80매에 대해 Tropp과 Wright(2003)가 사용한 인물 사진 평정 방법을 참고하여 성인 10명에게 각 인물 사진의 명확성, 성별, 표정,

외모의 매력도 및 인종적 신체특징을 판단하게 하였다. 다섯 가지 항목에서 전원이 일치하는 의견을 보인 사진을 최종 선정하여 사용했다. 사진은 6cm×8cm의 크기였으며 유아의 상반신까지 나와 있었고, 표정은 모두 웃는 얼굴로 통일하였다. 각 유아는 자기의 성별과 일치하는 유아 사진으로 된 과제에 참여하였다.

인물 묘사 과제는 유아가 단일자극 1(한국 유아 1명), 단일자극 2(동남아 유아 1명), 유사자극 1(한국 유아 2명), 유사자극 2(동남아 유아 2명), 대조자극(동남아 유아와 한국 유아)을 차례로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이 1매 제시되는 단일자극 1과 2에서는 “이 사진의 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여요?”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였다. 사진이 2매 제시되는 유사자극 1, 유사자극 2, 대조자극에서는 “이 두 친구들은 서로 닮았어요? 아니면 닮지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유아가 대답하고, 이어서 “어떤 점이 닮았어요/닮지 않았어요?”에 대해 대답하였다.

각 조건별 과제에 대한 유아의 응답을 분류하기 위해 선행연구(Guerrero et al., 2011; Lam et al., 2011; Ramsey & Myers, 1990; Semaj, 1981)를 참고하여 범주를 구성하였다. 범주는 일반 신체특징(머리카락, 눈, 코, 입 등), 인종적 신체 특징(피부색), 옷, 성별, 기타(표정, 인물 평가 등)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인종적 신체 특징 범주로 분류된 유아의 응답 사례를 살펴보면 “피부가 하얘요”, “살이 까매요”, “한국사람 같아요.” 등이다. 유아가 응답한 내용이 해당 범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15개를 추출하여 아동학 전공자 2인에게 평정을 의뢰한 뒤,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과제별로 평정자간 일치도는 95.6%~97.3%였다. 평정자 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

는 경우에는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토의한 후 최종 항목을 선정하였다.

2)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를 외모 및 언어 단서에 따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범주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진과 음성 자료로 구성된 과제를 사용한 연구(Hirschfeld & Gelman, 1997; Kinzler, Shutts, DeJesus, & Spelke, 2009)의 도구를 참고로 하였다. 외모 단서로는 유아에게 친숙한 외모의 한국인 사진과 친숙하지 않은 외모의 동남아인 사진을 사용하였다. 언어 단서로는 유아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유아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외국어인 영어로 녹음된 발화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친구 선택 과제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친구 선택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 과제는 앞서 내집단 범주화를 위해 사용하였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가 내집단 범주화 및 근거에 대한 응답을 마친 후 연구자는 곧바로 “○○이는 두 명 중에 누구와 놀고 싶어요?”라고 질문하였다. 한국인과 동남아인이 참여 유아에게 각각 놀이 상대로 선택된 총 빈도 및 비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와 친구 선택 과제는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조건(이하 일치 조건)과,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이하 불일치 조건)의 두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일치 조건은 한국인 사진에서 한국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고 동남아인 사진에서는 영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였다.

반면 불일치 조건은 한국인 사진에서 영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고 동남아인 사진에서는 한국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였다.

및 이에 대한 근거가 외모 및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절차

연구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조용한 공간에서 일대일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과제는 10인치 노트북 화면에서 파워포인트로 제시되었다. 연구자는 먼저 유아와 간단히 라포를 형성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 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분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인종적 신체특징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

III. 결과분석

1. 과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인물 묘사 과제 중 단일 자극 조건에서 한국인 사진 1매를 제시하며 “이 사진의 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라고 질문했을 때 인종적 신체 특징(예: “피부가 까맣요”, “피부가 하얗고 한국 사람 같아요.” 등)을 언급한 비율은 연령 및 자극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Table 1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남아인 1명이 제시된 단일자극 조건, 동남아인 2명이 제시된 유사자극 조건 및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이 제시 되는 대조자극 조건에서 인종적 신체 특징 언급

<Table 1> Percent of children mentioned racial physical feature during the task n(%)

Age	Task condition				
	Single stimulus		Similar stimuli		Different stimuli
	1 Korean	1 South Asian	2 Koreans	2 South Asians	1 Korean & 1 South Asian
	The frequency of mentioning racial physical feature		The frequency of judgement that two stimuli are similar		
3 years old	0(0.0)	3(11.1)	12(40.0)	8(27.6)	9(30.0)
4 years old	0(0.0)	10(34.5)	11(35.5)	12(38.7)	2(6.5)
5 years old	2(7.4)	15(57.7)	13(46.4)	17(50.7)	3(10.7)
Total	2(2.6)	28(34.1)	36(40.4)	37(42.0)	14(15.7)
X^2 (df)	N.S.		12.78(2)**		

** $p < .01$.

빈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단일자극 조건에서는 한국인 1명인 경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한 유아는 3세와 4세는 0명(0%), 5세는 2명(7.4%)이었다. 반면 인물사진이 동남아인 1명인 경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한 비율은 3세 3명(11.1%), 4세 10명(34.5%), 5세 15명(57.7%)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종적 신체특징을 언급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인물 자극이 2명씩 제시되는 유사 및 대조자극 조건에서는 두 인물이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유사자극 조건에서 한국인 2명의 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서로 닮았다는 응답이 36명(40.4%)이었으며, 동남아인 2명의 사진에 대해서 서로 닮았다는 응답은 37명(42.0%)으로 비슷하였다. 대조자극 조건의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에 대해서도 서로 닮았다는 응답은 14명(15.7%)로 유사 자극의 경우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2.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 = 61.09, df = 1, p < .001$). 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 42명 중 41명(97.6%)이 한국인 외모와 한국어 발화 조합의 유아 인물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불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 47명 중 40명(85.1%)이 동남아인 외모와 한국어 발화 조합의 인물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7명(14.9%)이 한국인 외모와 영어 발화 조합의 인물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친숙한 외모와 언어를 기반으로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를 수행하며, 외모 단서보다는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내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는 유아의 선택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살펴보았다. 유아의 개방형 진술을 일차적으로 정리한 뒤, 아동학 석사 2인의 평정자간 일치도 확인을 거쳐 총 5개의 범주로 선정하였다. 이는 Table 3에 정리한 것과 같이 동일한 언어 사용(예: “말이 한국사람 말이

<Table 2> Racial in-group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choice as Korean

	Presented stimuli	Chosen as a Korean n(%)
Condition 1	Korean child / Korean speaking	41(91.6)
	South Asian child / English speaking	1(2.4)
Condition 2	Korean child / English speaking	7(14.9)
	South Asian child / Korean speaking	40(85.1)
X^2 (df)		61.09(1)***

*** $p < .001$.

<Table 3> Frequency and percent: Justification of racial in-group classification

	Task condition			
	Condition 1		Condition 2	
	Korean child with Korean speaking	South Asian child with English speaking	Korean child with English speaking	South Asian child with Korean speaking
Chosen as Korean	41(97.6)	1(2.4)	7(14.9)	40(85.1)
Justification				
Same language	28(82.4)	0(0.0)	1(14.3)	26(83.8)
Same visual features	4(11.8)	0(0.0)	3(42.9)	2(6.5)
Attractiveness	1(2.9)	0(0.0)	2(28.5)	1(3.2)
Longing for English	0(0.0)	1(100.0)	0(0.0)	0(0.0)
Etc.	1(2.9)	0(0.0)	1(14.3)	2(6.5)
Total	34(100.0)	1(100.0)	7(100.0)	31(100.0)
X^2 (df)	35.00(4)***		14.73(3)**	

** $p < .01$. *** $p < .001$.

니까요”), 동일한 외모(“얼굴색이 같으니까.”), 외모의 매력(“예쁘니까요.”), 영어에 대한 동경심(“영어로 말했어요.”), 기타(“그냥요.”)의 다섯 가지이다.

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가 응답한 범주화 수행의 근거는 범주화 양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 조건에서 한국인 사진과 한국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을 내집단(한국인)으로 선택한 41명 중 동일한 언어 사용을 근거로 선택한 비율(82.4%)이 가장 높았다. 한편 불일치 조건에서 동남아인 사진과 한국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을 내집단(한국인)으로 선택한 40명(85.1%) 중에서도 동일한 언어 사용을 근거로 선택한 비율(83.8%)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인물 자극이 유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집단으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유아가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에서 동일한 언어 사용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동일한 언어 사용을 통한 소속감 공유로 해석된다. 이는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한 Kinzler와 Dautel(2012)의 연구에서 언어 집단 소속감이 개인의 정체성에서 결정적이라고 인식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3.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인물 선택 과제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물 자극에 대한 유아의 선호도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 = 16.30, df = 1, p < .001$).

<Table 4> Frequency and percent of choice as a playmate

Presented stimuli		Chosen as a playmate n(%)
Condition 1	Korean child / Korean speaking	35(94.6)
	South Asian child / English speaking	2(5.4)
Condition 2	Korean child / English speaking	24(54.5)
	South Asian child / Korean speaking	20(45.5)
$X^2(df)$		16.30(1)***

*** $p < .001$.

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 37명 중 35명(94.6%)이 한국인 외모와 한국어 발화 조합의 유아 인물을 함께 놀고 싶은 친구로 선택하였다. 불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 44명 중에서는 24명(54.5%)이 한국인 외모와 영어 발화 조합의 인물을 함께 놀고 싶은 친구로 선택하였다.

일치 조건에서 유아가 한국인 외모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물을 놀이 상대로 선택한 것은 유아가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Aboud & Amato, 2003; Allport, 1958)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불일치 조건에서 유아가 언어 단서보다 외모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놀이 상대로 선호한 결과는 주류 집단의 유아가 자신과 같은 인종의 또래와 노는 빈도가 높았다(Ramsey & Myers, 1990)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인종 집단 간의 접촉이 편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McGlothlin & Killen, 2010)는 설명과 같이, 이 연구의 참여 유아는 동남아인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친숙한 한국인 외모의 인물을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불일치 조건에서도 외모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이 선택된 비율이 유의하게 높지만,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이 선택된 비율도 45.5%로, 일치 조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인물의 외모 단서가 내집단의 것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언어가 일치하면 놀이 상대로 선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같은 인종이지만 언어가 다른 또래보다는 인종이 다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또래를 선호했다는 연구(Kinzler et al., 2009)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는 외모 단서의 영향을 받지만 언어 단서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Table 4에서 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인종적 신체 특징이 동남아인이 영어로 말하는 경우 놀이 상대로 선택된 비율이 5.4%이지만 동일한 인물이 한국어로 말하는 경우 선택된 비율은 45.5%로 높았다.

인종에 대한 선호도의 근거는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어 사용, 동일한 외모, 외모의 매력, 영어에 대한 동경심 및 기타의 다섯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유아의 응답 양상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물 자극의 인종적 신체 특징과 언어가 일치하는 조건의 과제에 참여한 유아 37명 중 35명(94.6%)이 한국인 사진과 한국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의 인물을 함께 놀고 싶은 친구로

<Table 5> Frequency and percent: Justification of racial preference n(%)

	Task condition			
	Condition 1		Condition 2	
	Korean child with Korean speaking	South Asian child with English speaking	Korean child with English speaking	South Asian child with Korean speaking
Chosen as playmate	35(94.6)	2(5.4)	24(54.5)	20(45.5)
Justification				
Same language	13(44.8)	0(0.0)	0(0.0)	10(66.7)
Same visual features	8(27.6)	0(0.0)	2(11.1)	2(13.3)
Attractiveness	5(17.2)	1(50.0)	8(44.4)	0(0.0)
Longing for English	0(0.0)	0(0.0)	2(11.1)	0(0.0)
Etc.	3(10.3)	1(50.0)	6(33.3)	3(20.0)
Total	29(100.0)	2(100.0)	18(100.0)	15(100.0)
$X^2(df)$	4.77(3)		14.73(4)***	

*** $p < .001$.

선택하였다. 선택 근거를 살펴보면 ‘동일한 언어사용(예: “한국말을 하니깐 말이 통해요.”)을 언급한 유아가 13명(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인물 자극이 유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놀이 친구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물 자극의 인종적 신체 특징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의 과제에 참여한 44명의 유아 중 24명(54.5%)가 한국인 사진과 영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의 인물을 함께 놀고 싶은 친구로 선택하였다. 선호의 근거를 제시한 유아는 24명 중 18명이였다. 대상 선호의 근거 중 ‘외모의 매력’을 제시한 유아가 8명(44.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인물 자극의 외모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놀이 친구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일치 조건에서 유아가 한국인 사진과 한국어 조합의 인물을 선택한 결과는 유아가 익숙한 인물을 선호한다(Aboud & Amato, 2003; Allport, 1958)는 맥락에서 해석된다. 불일치 조건에서는

외모가 일치하는 인물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이 인종 측면에서 동질적 환경에 살면서 같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지닌 또래들과 놀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외모의 인물을 놀이 친구로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일치 조건에서 언어가 일치하는 인물을 선호하는 비율은 외모가 일치하는 인물을 선호한 비율보다는 낮으나 45.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놀이는 상호작용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유아는 놀이 상대를 선택할 때 사회적 관계를 맺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언어(Heller, 1987)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외국인거주자의 수가 증가하는 한국의 사회적 추세에서 동남아인에 초점을 맞춘

유아의 인종 인식 연구가 부족한 점에 주목하여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인종적 신체 특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 자극의 개수 및 제시 순서의 조건별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외모와 언어에 따라 동남아인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수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높은 연령의 유아일수록 동남아인을 보았을 때 인종적 신체 특징을 뚜렷하게 인식하였다. 한국인을 묘사할 때 3, 4, 5세 유아 모두 머리카락의 형태나 길이, 얼굴 생김새 및 구성 요소, 옷의 색상이나 장식 요소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인을 묘사할 때는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적 신체 특징이나 옷을 언급하는 빈도는 감소하고,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인종 인식의 발달에서 연령과 같은 개인 내적인 성숙 요인이 작용함을 보여준다.

둘째, 인물 자극이 2명씩 제시되는 유사 및 대조 조건에서 두 인물이 모두 닮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이는 유사성에 대한 지각이 차이의 지각보다 어렵다(Markman, 1989)는 설명으로 이해된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제시된 사진의 동남아인 2명이 서로 닮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사람들이 외집단 구성원간의 외양 차이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한다(Bartsch & Judd, 1993; Mullen & Hu, 1989; Park & Rothbart, 1982)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유아는 동남아인을 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동남

아인 2명에 대해 외모가 닮았다고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해석 또한 가능하다. 유아들이 동남아인 2명이 서로 닮았다는 근거로 피부색을 언급한 빈도와, 서로 닮지 않았다는 근거로 피부색을 언급한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만약 유아가 동남아인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외집단으로 여기는 태도가 나타났다면 두 인물이 닮았다는 판단에서만 인종적 신체 특징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했을 것이다. 유사성보다 차이에 대한 인식이 더 쉽기 때문에 유아들이 두 인물이 다르다고 판단은 하였으나 근거를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이전의 응답 내용과 상관없이 인물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이 현저하게 지각되어 이를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지만, 한국인과 함께 제시되어 차이가 부각될 때에 동남아인의 인종적 신체 특징이 보다 현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유아의 인종 인식 연구와 비교하여볼 때,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이 사회 맥락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적 담론으로 다루어졌던 미국에서는 유아들이 3~4세부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한다(Porter, 1971; Rotheram & Phinney, 1987). 최근 20여 년 동안 급속히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5세가 되어야 인종적 신체 특징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Guerrero et al., 2011). 이 연구대상인 한국 유아는 5세가 되어야 동남아인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는 비율이 50% 이상 되어, 다른 국가의 유아보다 인식의 시기가 늦었다.

신체 특징이 사회 및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

는 점은 유아의 인물 묘사에서 성별에 대한 언급 빈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Semaj(1981)의 연구에서는 인물을 묘사할 때 유아가 성별을 언급한 비율이 36%~90%의 범위였다. 스페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Guerrero 등(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84.3%~100%가 인물을 묘사하면서 성별을 언급하였다. 이에 비해 이 연구의 유아가 성별을 언급한 비율은 0%~8.9%로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국가별로 유아가 자신을 설명할 때 성별을 언급한 비율이 달랐다는 결과(Lambert & Klinberg, 1967)와 같이 성별에 대한 언급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어에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영어나 스페인어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문법 체계에 성 정보가 입력(Sera et al., 2002)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을 지칭할 때 자연스럽게 성별이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적 신체 특징 관련 용어도 언어 체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물의 특성을 묘사할 때 해당 언어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유아가 어떤 인물을 보고 내집단 구성원인지를 판단할 때 그 인물이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한 단서였다. 유아는 시각 단서는 일치하나 언어 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인물보다는 시각 단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선택의 근거로는 인물이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 정보보다 언어가 집단 분류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Heller, 1987; Hirschfeld & Gelman, 1997; Kinzler et al., 2007; Kurzban, Tooby, &

Cosmides, 2001; Stangor & Langué, 1994)와 일치한다. 인종 집단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 차이에 주목하는 인지 과정이 아니라 집단에 내포된 사회적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한 Hirschfeld (1995)의 주장과 같이 이 연구에서도 유아는 지각적 요인에 따라 단순히 범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인 언어에 집중하였다.

다섯째, 유아가 어떤 인물을 보고 놀고 싶은지 판단할 때 그 인물의 외모가 중요한 단서였다. 이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상반되는 조건에서 선호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과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Kinzler와 Spelke(2011)의 연구에서 5세 유아는 자신과 인종이 일치하지 않지만 모국어 악센트를 쓰는 사람보다, 자신과 인종이 일치하지만 외국어 악센트를 쓰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했다. 이 연구에서도 유아는 언어 단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외모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놀이 친구로 선택하였고, 선택의 근거로는 외모의 매력을 언급한 비율이 높았다. Chen, Correveau와 Harris(2011)의 결과에 따르면, 유아는 자신에게 친숙하거나 이전에 신뢰도가 입증된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를 선호하였다. 이 연구 대상 유아가 인종 측면에서 동질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유아는 경험상 한국 외모의 또래가 놀이 상대로 더 친숙하기 때문에 한국 인물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 인물이라도 언어가 일치하면 놀이 상대로 선택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유아의 외집단에 대한 선호 형성 과정에서 해당 외집단에 대해 자주 접촉하여 친숙하게 되는 것이 중요함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에 유아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집단에 대해 알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동남아인에 대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연령 및 인물 자극의 유사성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인 내적인 특성을 가지며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도 받음을 알 수 있다. 언어가 내집단 범주화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통해 유아의 인종 집단에 대한 인식은 지각 수준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선호도에서 외모 단서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통해 내집단으로 수용된다고 하여 바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놀이 상대로 선호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를 보면, 한국의 다문화 유아가 외모의 차이로 인해 놀림을 받는다(Seo & Lee, 2007)는 결과가 있다. 이 연구는 외모와 언어 특징으로 나누어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살펴보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외모와 언어 중 한 가지가 배타적으로 선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외모나 언어의 유사성과 이질성은 연속선상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또래에 대한 평가나 선호도와 관련되어 있는 양상은 다양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인물 자극을 한국인과 동남아인에 한정해서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 백인이나 흑인 인물 자극을 사용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세부 요인을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외모의 여러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인물 사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어 제한된 인물 자극을 여러 가지 과제에 반복 사용하였다. 즉 단일 자극에서 제시했던 유아의 사진을 유사 자극과 대조 자극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하였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이미 보았다는 점이 유아의 대답에 오염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도구 제작 과정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에게 영어가 인지도가 높은 외국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영어와 같이 인지도가 높은 외국어와, 보다 인지도가 낮은 언어(예: 베트남 어)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동남아인에 초점을 맞추어 인종적 신체 특징의 현저함이 달라질 수 있는 단일, 유사, 대조 조건으로 나누어 인물 자극을 제시하여 각 조건에 따라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의 경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세부적으로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인종에 대한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두 가지 과정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으며,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이 요인들이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의미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References

- Aboud, F. E. (2003). The formation of in-group favoritism and out-group prejudice in young children: Are they distinct attitudes? *Developmental Psychology*, 39, 48-60.
- Aboud, F. E., & Amato, M. (2003). Developmental and socialization influences on intergroup bias. In R. Brown & S. L. Gae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group processes* (pp. 65-88). Malden, Oxford, Carlton & Berlin: Blackwell Publishers Ltd.

- Allport, G. W. (1958). *The nature of prejudice*. Garden City: Doubleday & Anchor Books.
- Bar-Tal, D. (1996). Development of social categories and stereotypes in early childhood: The case of "the Arab"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3/4), 341-370.
- Bartsch, R. A., & Judd, C. M. (1993). Majority-minority status and perceived ingroup variability revisit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471-485.
- Billig, M., & Tajfel, H. (1972).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27-51.
- Cameron, J. A., Alvarez, J. M., Ruble, D N., & Fuligni, A J. (2001). Children's lay theories about ingroups and outgroups: Reconceptualizing research on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2), 118-128.
- Campanella, S., & Belin, P. (2007). Integrating face and voice in person percep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12), 535-543.
- Chang, Y. H., Lee, S. J., Kim, H. S., & Kim, C. H. (1999). Racial awareness in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95-110.
- Chen, E. E., Corriveau, K. H., & Harris, P. L. (2011). Children are sociologists. *Anales de Psicología*, 27(3), 625-630.
- Cho, Y. J. (1999). *Eolgul, hankukineu nat*. Seoul: Sakejul Press.
- Clark, K. B., & Clark, M. K. (1939). The development of consciousness of self and the emergence of racial identity in Negro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4), 591-599.
- DeCasper, A. J., & Fifer, W. P. (1980). Of human bonding: New borns prefer their mothers' voices. *Science*, 208, 1174-1176.
- Enesco, I., Gerrero, S., Callejas, C., & Solbes, I. (2008). Intergroup attitudes and reasoning about social exclusion in majority and minority children in Spain. In S. R. Levy & M. Killen (Eds),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in childhood through adulthood* (pp. 105-12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nesco, I., Navarro, A., Paradelo, I., & Guerrero, S. (2005). Stereotypes and beliefs about different ethnic groups in Spain: A study with Spanish and lati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Madri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638-659.
- Guerrero, S. (2006). El desarrollo de la toma de conciencia racial: Un estudio evolutivo con niños españoles de 3 a 5 año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Madrid, Spain.
- Guerrero, S., Enesco, I., & Lam, V. (2011). Racial awareness, affect and sorting abilities: A study with preschool children. *Anales de Psicología*, 27(3), 639-646.
- Heller, M. (1987). The role of language in the formation of ethnic identity. In J. S. Phinney, & M. J. Rotheram (Eds), *Children's ethnic socialization* (pp. 180-200).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Ltd.
- Hirschfeld, L. A. (1995). Do children have a theory of race? *Cognition*, 54, 209-252.
- Hirschfeld, L. A. (1998). *Race in the making: cognition, culture, and the child's construction of human kinds*. Cambridge: MIT Press.

- Hirschfeld, L. A., & Gelman, S. A. (1997). What young children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variation and social difference. *Cognitive Development, 12*, 213-238.
- Jahoda, G. (196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ideas about country and nationalit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3*(1), 47-60.
- Kim, B. J., Kim, B. S., Seo, H. C., Oh, M. S., Eun, K. S., Jung, M. R., Jung, J. K., & Seol, D. H. (2011). *Immigrant workers and Korean Socie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inzler, K. D., & Dautel, J. B. (2012). Children's essentialist reasoning about language and race. *Developmental Science, 15*(1), 131-138.
- Kinzler, K. D., Shutts, K., & Correll, J. (2010). Priorities in social categor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581-592.
- Kinzler, K. D., Shutts, K., DeJesus, J., & Spelke, E. (2009). Accent trumps race in guiding children's social preferences. *Social Cognition, 27*, 623-634.
- Kinzler, K. D., Dupoux, E., & Spelke, E. S. (2007). The native language of social cogni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4*, 12577-12580.
- Kinzler, K. D., & Spelke, E. S. (2011). Do infants show social preferences for people differing in race? *Cognition, 119*, 1-9.
- Kurzban, R., Tooby, J., & Cosmides, L. (2001). Can race be erased? Coalitional computation and social categoriz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98*, 15387-15392.
- Lam, V., Guerrero, S., Damree, N., & Enesco, I. (2011). Young children's racial awareness and affect and their perceptions about mother's racial affect in a multiracial contex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9*, 841-864.
- Lambert, W. E., & Klineberg, O. (1967). *Children's views of foreign peoples: A cross-national study*.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 Lee, M. J. (2009). Children's understanding about race. *The Korean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8*(3), 175-190.
- Lee, J. H. (1999).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using project approaches on the decrease of children's prejudice on ra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Loveman, M. (1999). Is "Race" essentia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6), 891-898.
- Markman, E. M. (1989). *Categorization and naming in children: Problems of induc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McGlothlin, H., & Killen, M. (2010). How social experience is related to children's intergroup attitud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625-634.
- Mullen, B., & Hu, L. (1989). Perceptions of ingroup and outgroup variability: A meta-analytic integr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9*(3), 233-252.
- Park, B., & Rothbart, M. (1982). Perception of out-group homogeneity and levels of social categorization: Memory for the subordinate attribute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051-1068.
- Porter, J. D. R. (1971). *Black child, White child: The development of racial attitud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amsey, P. G. (1991). Young children's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social class differenc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2, 71-82.
- Ramsey, P. G., & Myers, L. C. (1990). Salience of race in young children's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to social environm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9-67.
- Rotheram, M. J., & Phinney, J. S. (1987). Introduction: Definition and perspectives in the study of children's ethnic socialization. In J. S. Phinney & M. J. Rotheram (Eds), *Children's ethnic socialization: Pluralism and development* (pp. 19-31),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Inc.
- Sangrigoli, S., & Schonon, S. (2004). Recognition of own-race and other-race faces by tree-month-old infa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7), 1219-1227.
- Semaj, L. T. (1981). The development of racial classification abilities. *Journal of Negro Education*, 50, 41-47.
- Seo, H. (2010). The life of young children and the teacher's teaching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t annexed kindergartens in rural areas - focused on kindergartens with a Larg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6), 195-222.
- Seo, H., & Lee, S. E. (2007). A study on the difficulties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agricultural regions. *Korean Op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2(4), 25-47.
- Seol, D. H. (1999). *Foreign workers in Korean socie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Sera, M. D., Elieff, C., Forbes, J., Burch, M. C., & Rodriguez, W. (2002). When language affects cognition and when it does not: An analysis of grammatical gender and class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1(3), 377-397.
- Shim, W. J.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art appreciation and children's attitudes towards difference ra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H. K. (2007). Effect of inquiry-centered multicultural education activities on racial prejudice and prosocial behavior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Shutts, K., Kinzler, K. D., McKee, C. B., & Spelke, E. S. (2009). Social information guides infants' selection of food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0(1-2), 1-17.
- Signorella, M. L., Bigler, R. S., & Liben, L. S. (1993).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hildren's gender schemata about others: A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13, 137-183.
- Stangor, C., & Langue, J. (1994). Mental representations of social groups: Advances in understanding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pp. 357-416). San Diego:

- Academic Press.
- Taylor, P. C. (2004). *Race: A philosophical introduction(1st)*. Cambridge & Malden: Blackwell Publishers Ltd.
- Tropp, L. R., & Wright, S. C. (2003). Evaluations and perceptions of self, ingroup, and outgroup: comparisons between Mexican-American and European-American children. *Self and Identity*, 2, 203-221.
- Turner, J. C. (1982). Social categorization processes and group behaviour. In H. Tajfel (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pp. 28-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oon, S., & Cha, M. Y. (2010). Narratives of teachers who currently are teaching multi-cultural young childre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25, 353-370.
- Zajonc, R. B. (1980). Fel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2), 151-175.

Received November 30, 2013
Revision Received March 4, 2014
Accepted March 15, 2014